【 2015.12.18(금)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장은 18일 오후 5시30분 인제군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회원사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

"지역 건설산업을 살려라"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이 적극 추진된다.

도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하반기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2월1일 기준 전체 예산액 14조6,438억원 대비 10조7,438억원을 소진해 73.4%의 집행률을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재정집행 91.8%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 조기 발주 및 신속한 자금집행 △예산집행 쏠림방지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 △재정집행 상황실 설치·운영 △실적관리·애로사항 수렴 △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관리

도 사업 조기 발주·자금 신속집행

고용 확대 방안 마련 등 적극 추진

카드 작성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시·군 재정집행 현지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건설시장 구인난 해소를 위한 현장인력 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경기 침체 및 공사물량 감소로 일자리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인 39만950명의 128%인 5만2,777명을 고용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건설 현장인력 고용 확대를 계속 독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고용실적은 내년 초 집계 후 분석·평가해 건설시장 일자리가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계는 경기 침체, 발주물량 감소, 외지·철새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수년간 경영난·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정집행 최대화, 구인난 해소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2015.12.18(금) 강원도민일보 】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18일 오후 5시 30분 인제군 한 음식점에서 '지역 순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회원사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 2015.12.18(금)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오늘 간담회… 회원사 애로사항 수렴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18일 인제군 내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